

The Association between the Emphasis of Matter in Audit Report and Audit Fees and Audit Hours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의 관련성

Hyun Ah Kim(First Author)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kukolo@koreatech.ac.kr)

Namchul Jung(Corresponding Auth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gik University
(jnc1208@hongik.ac.kr)

.....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hasis of matter (EOM) and audit fees and audit hours. Through this, the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information usefulness of EOM and its type in the audit report exists. The analysis results for 13,491 listed firm-years without going concern uncertainty EOM from 2011 to 2019 are as follows. First, the inclusion of EOM in the audit report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audit fees and audit hours, showing that the auditor recognize the incident of EOM as an audit risk factor and respond to it. Among the types of EOM,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orders-based industries showed an positive relationship with both audit fees and audit hours. In addition, EOM related to the litigation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mainly with audit fees, and in the case of accounting changes and error corrections, mainly with audit hours. This means that the auditors perform the audit by recognizing EOM other than going concern uncertainty as important information. This study presented results that support the supervisory authority's policy by suggesting the usefulness of information by EOM and its type.

Key Words: Emphasis of Matter, Audit Report, Audit Fees, Audit Hours, Audit Quality, Going Concern

.....

1. 서론

본 연구는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제외한 강조사항에 대해 감사인이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정보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강조사항은 감사기준서 706에 의거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이 노출된 위험에 대해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감사보고서에 포함하는 문단으로 New ISA 도입 이전에도 '특기사항'(2013 사업연도 이전)으로

Submission Date: 09. 25. 2023

Revised Date: (1st: 11. 02. 2023)

Accepted Date: 11. 16. 2023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바 있다.¹⁾

강조사항 도입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여러 유형의 강조사항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대해서만 일관되게 유의미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²⁾ 계속기업 이슈는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1.20.), 감사위험 측면에서 다른 유형의 강조사항과 차별적이다.³⁾ 이에 근거하여 2017년 말 회계감사기준 개정 시 계속기업 공시 관련 감사인의 평가를 강화하고 감사보고서에 다른 강조사항과 구분하여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을 기재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감사보고서는 정보이용자들에게 감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사항들을 전달하기 위해 도입된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⁴⁾ 이러한 변화는 위험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추가 및 구분 표시함으로써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당국의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감사보고서를 둘러싼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계속기업 이외 강조사항(예, 특수관계자 간 거래, 소송, 회계변경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새로운 감사보고서에도 포함된다. 감사보고서 정보량 급증으로 정보이용자의 가독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의

감사보고서 포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 기재 기업을 제외한 표본을 대상으로 강조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을 조사하여 해당 정보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강조사항 기재 여부뿐 아니라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 특수관계자 거래, 소송, 회계변경 등 강조사항 유형에 따라 감사인의 대응이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만약 감사인이 강조사항을 감사위험과 관련성을 갖는 중요한 정보로 인식한다면 이를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적절하게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2월 결산 상장기업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하지 않은 13,491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강조사항 기재는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환경 변화와 특수관계자 거래, 수주산업 강조사항에서 두 변수 모두와 전반적으로 양(+)의 관련성이 유지되었다. 한편, 소송의 경우 감사보수에 대해서만 유의성이 관찰되었으며,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경우 주로 감사시간에 대해서만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 이외 강조사항의 상당부분을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여 감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1) 감사기준서 706 문단 8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또는 공시된 사항으로서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들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감사인이 해당 사항으로 인하여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의견을 변형할 것으로 요구되지 않는 것을
 - (b)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항은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되어야 하는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되지 않았음
- 2) 계속기업 강조사항을 기재한 기업일수록 주식시장과 자본비용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하고(Lee and Park, 2003; Park et al., 2015), 감사보고 시차가 길고(Jung et al., 2019), 감사인 교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ohn et al., 2017).
 - 3)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을 기재한 기업의 1년 이내 상장폐지 및 비적정의견 비율은 그렇지 않은 기업 대비 11배 높고(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1.20.), 감사인 교체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ohn et al., 2017).
 - 4) 핵심감사제는 2015년 1월 국제감사기준이 핵심감사사항의 감사보고서 기재를 의무화함에 따라 2016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수주산업을 대상으로 선도입되었으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8년 감사보고서,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사는 2019년 감사보고서, 전체 상장사는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핵심감사사항 기재가 의무화 된 바 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7.12.20.).

새로운 감사보고서에서도 이들 정보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강조사항(계속기업 불확실성 제외) 기재 기업과 미기재 기업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강조사항 기재 기업일수록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낮으며,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측면에서도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강조사항 기재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간의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강조사항 관련 정보를 감사인이 중요하게 고려하여 감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해당 정보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추가분석으로 감사보고서 개편의 영향 이전 기간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여, 감사인의 강조사항 기재 및 그 유형에 대한 대응이 감사보고서 개편 전후에도 일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강조사항 기재기업의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성향매칭점수 분석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도 본 연구의 주된 결과가 유지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의 공헌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금융감독원이 매년 실시하는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분석에서 강조사항 기재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금융꿀팁⁵⁾ 등을 통해 정보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기업 이의 강조사항이 유용한 정보인지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새로운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을 별도로 구분 기재한 후에도 강조사항 문단이 여전히 포함되는 상황에서 본 연

구결과는 이들 정보의 유용성을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정책의 적절성을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비중이 높은 강조사항 유형인 특수관계자 간 거래, 영업환경 변화 및 소송에 대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유의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는 강조사항 별 감사인 대응이 다름을 의미하며, 정보이용자들이 이를 고려하여 의사결정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강조사항 관련 연구에서 표본의 동질성 확보가 중요함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계속기업가정은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기업은 다른 유형의 강조사항 기재 기업에 비해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 감독당국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왔으며, 2018년 감사보고서 개편 시에도 핵심감사사항 앞에 배치하여 그 중요성을 더욱 더 강조하고 있다.⁶⁾ 이는 계속기업 강조사항 기재 기업이 위험 측면에서 다른 기업들과 상당히 차별적임을 의미하므로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배제한 분석이 필요하다. 강조사항의 다소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유형별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비동질적인 표본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아 다른 강조사항의 정보효과가 계속기업에 가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계속기업 기재 표본을 제외한 후 강조사항이 유형별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관련성을 가짐을 보임으로써 강조사항 관련 연구를 새로운 관점에서 확장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II장에서

5) 금융감독원에서 국민들에게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알기 쉽게 정리한 정보(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1.20.)

6) 2017년 이전 감사보고서는 1.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2. 감사인의 책임, 3. 감사의견, 4. 강조·기타사항, 5. 감사보고서일, 주소, 서명 순서로 작성되었으나, 2018년 이후 감사보고서는 1. 감사의견, 2. 감사의견 근거, 3.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4. 핵심감사사항, 5. 강조·기타사항("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은 제외), 6.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7.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8. 감사보고서일, 주소, 서명 순서로 개편되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1.20.).

는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고, III장에서는 표본과 연구모형을 중심으로 연구설계를 제시한 후 IV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V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한계점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2.1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관련 선행연구

강조사항을 기재하는 상장기업 비율은 2015년 19.8% 수준이었으며, 2016년 수주산업 관련 핵심 감사항목이 강조사항에 포함되면서 2017년 28.4%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부터 계속기업 관련 중요

한 불확실성과 핵심감사사항을 별도 기재하면서 2018년 13.2%, 2019년 13.4%로 급격히 감소되었다(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2016. 7. 19., 2018. 8. 8., 2020. 8. 19.). 이러한 감소 추이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최근에도 ‘금융꿀팁’을 통해 강조사항이 투자판단결정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정보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보이용자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 1. 20.). 이와 같은 감독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조사항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집중하여 해당 정보의 유용성을 확인시키고 있다.

초기 연구에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정보에 대해 자본시장이 공시 이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공시 시점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현상을 투자자들이 재무

〈Table 1〉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 문단에 기재된 주요 내용⁷⁾

(단위: 건, 사)

항목별 구분	2017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KAM)	266	-	-
특수관계자 등 중요한 거래	181	154	121
합병 등 영업환경, 지배구조 변화	185	131	66
회계 변경	102	117	50
소송 등 중대한 불확실성	118*	34	42
기타	48	50	77
강조사항 합계	900건	486건	356건
기재기업 수	611사	294사	308사
상장기업 수(코넥스 포함)	2,155	2,230사	2,301사
기재기업 비율	28.35%	13.18%	13.38%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2020. 8. 19. 및 2018. 8. 8.)

* 계속기업 불확실성 84건 포함

7) 이전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감사인의 책임, 감사의견, 강조사항, 기타사항 순으로 기재되었으나, 201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부터 감사의견, 감사의견근거,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강조사항, 핵심감사사항, 기타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업무담당이사 이름순으로 변경되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7.12.20.). 따라서 2017 회계연도까지 강조사항에 포함되어 기재되었던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과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은 2018 회계연도부터 별도의 단락으로 분리되어 기재된다.

적 곤경을 미리 인지하였기 때문에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Carson et al., 2013). 그러나 이후 연구는 자금조달 측면 또는 부채약관 위반 관련 계속기업 불확실성 공시가 부(-)의 초과수익률을 심화시킨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고(Menon and Williams, 2010), 높은 자본비용과도 관련(Amin et al., 2014)된다는 분석결과를 통해 해당 정보의 유용성을 지지한다. 이와 일관되게 국내 연구도 계속기업 강조사항에 대해 주식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Lee and Park, 2003), 낮은 신용등급 및 높은 타인자본비용과 관련됨을(Park et al., 2015) 실증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기업일수록 감사보고 시차가 길고(Kim et al., 2019; Jung et al., 2019), 강조사항 없는 기업에 비해 감사인 교체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감사위험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Sohn et al., 2017).

Cheon et al.(2004)는 위험회피적 감사인이거나 재무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강조사항(구, 특기사항) 기재 유인이 높다는 결과를 통해 강조사항이 감사위험과 관련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인 교체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인이 강조사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해당 연구에서는 강조사항이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만 원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광범위한 강조사항 기재 사유가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이후 강조사항 기재 비율이 9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제기된 주장이지만, 강조사항 유형이 현재와 1990년대 후반이 큰 차이가 없음을 고려한다면 다시 한 번 유형별로 강조사항의 유용성을 검토하여 기재 사유의 조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Yoon and Hwang(2015)는 강조사항 기재대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감사인들의 의견 일치도를 조사한 결과 감사인들 간 의견일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발견하여 해당 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등의 보완을 통해 기재대상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Jung et al.(2019)는 강조사항 유형 별로 감사보고시차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기업, 회계 변경 또는 오류수정이 존재하는 기업과 보고기간 후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만 감사보고시차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짐을 보여 일부 강조사항만 위험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나타낸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제외한 강조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해당정보를 피감사기업에 대한 위험으로 인식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강조사항의 정보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2.2 연구기설 설정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상장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날 뿐 아니라 투입된 감사시간을 공시해야 하므로 감사인은 감사위험과 관련하여 감사의견 이외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존재한다. 강조사항은 감사인이 감사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제외한 강조사항에 대해 해당 정보가 감사위험을 반영하는지는 실증적으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Cheon et al.(2004)가 주장한 바와 같이 감사보고서 정보는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수준이 공시될 때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핵심감사사항 등 새로운 정보가 감사보고서에 추가되는 상황 하에서 과거

〈Table 2〉 감사인 선임방법별 적정의견 비율

(단위: 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유 수입	회사 수	1,984	1,998	2,160	1,597	1,397
	적정의견 비율	99.0	99.1	98.1	99.0	98.7
지정	회사 수	171	232	141	767	1,031
	적정의견 비율	92.4	89.2	83.0	92.8	95.2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2022. 8. 17.)

부터 계속적으로 공시되어 온 강조사항 정보가 감사 위험을 반영하는 유용한 정보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강조사항 기재대상의 수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hoi et al.(2023)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이용하여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설명(explanatory language)이 감사인이 인식한 감사위험(perceived audit risk)을 반영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전통적 감사위험 변수인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뿐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새롭게 도출한 감성(sentiment)⁸⁾ 변수를 통해 실증분석 한 결과 강조사항 기재는 높은 감사보수 및 부정적인 톤(negative tone)과 관련성을 가지지만, 감사시간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제외한 단일 강조사항 및 복수 강조사항, 즉 강조사항의 심각성(severity)에 따라 감사위험과의 관련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분석에서는 단일 강조사항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지만 계속기업 불

확실성은 감사보수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나타나고 복수 강조사항의 경우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단일 강조사항, 복수 강조사항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 모두 부정적인 톤(lower sentiment)에 대해서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일뿐 아니라, 계수 값의 크기도 단일 강조사항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어 새로운 변수가 강조사항의 심각성과 감사위험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저자들은 해석하고 있다.⁹⁾

낮은 경영성과와 높은 재무위험을 가진 기업일수록 강조사항 기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Cheon et al., 2004),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구분 보고되는 최근에도 금융감독원이 강조사항을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어¹⁰⁾ 계속기업 불확실성 이외의 강조사항도 기업의 위험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Choi et al.(2023)의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제외한 단일 강조사항 기재와 감사위험 변수가 유의

8)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애스펙트 마이닝 방법(aspect mining method)을 이용하여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감정 단어(sentiment words)의 질적 측면을 양적 측면으로 변환하여 감사위험과 음(-)의 관련성을 갖도록 정의함.

9) Choi et al.(2023)의 Table 5에 따르면 종속변수가 SENTI인 경우 EXLSINGLE, EXLMULTIPLE, EXLGCC의 계수 값은 각각 -0.009, -0.010, -0.011로 나타남.

1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1.20.) [금융꿀팁 200선 - 120번] - ㉔ 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

하게 관련된다는 실증결과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이외의 강조사항 관련 이벤트를 감사인이 감사위험으로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 이외의 강조사항 유형에 내포된 감사위험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강조사항 기재기업에 대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이 논의에 근거하여 [연구가설 1]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연구가설 1: 계속기업 불확실성 이외 강조사항을 공시한 기업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공시하지 않은 기업보다 높을 것이다.

Choi et al.(2023)의 결과를 통해 감사인이 기업의 감사위험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사항이 활용됨을 알 수 있지만,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강조사항 기재 대상이 영업환경 변화, 특수관계자 거래, 소송, 회계변경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강조사항 유형을 감사인이 감사위험으로 인지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특히 Choi et al.(2023)에서 단일 강조사항의 유의한 결과가 복수 강조사항의 경우 유지되지 않는 것은 강조사항 기재 유형 별로 감사위험의 반영 정도가 다른데서 비롯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Czerney et al.(2014)에 따르면 적정의견 감사보고서에 설명이 포함될수록 재무제표가 재작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합병과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강조사항(emphasis of matter) 기재는 관련 항목의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이어진다. 이는 강조사항 유형 중 영업환경 변화와 특수관계자 거래가 감사위험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이와 일관되게 Lim et al.(2015)는 기업의 인수합병은 사업의

복잡성 증대로 회계 오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등 감사위험을 평균적으로 증가시키지만, 인수기업의 지배구조가 양호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완화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Han and Lee(2015)은 특수관계자 채권, 채무 거래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이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짐을 보이고, Han et al.(2020)도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위험 관리를 위해 감사시간이 많이 투입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영업환경 변화와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강조사항은 감사위험과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감사인이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영업환경 변화와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강조사항 기재기업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가설 2-1]을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연구가설 2-1: 영업환경 변화 또는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강조사항을 공시한 기업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공시하지 않은 기업보다 높다.

피감사기업의 소송은 감사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으며, 선행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소송발생기업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유의하게 높음을 보이고(Choi et al., 2012; Park and Kwak, 2013), 소송발생기업의 자본비용이 소송에 계류되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으며, 소송 관련 강조사항(구, 특기사항) 기재기업일수록 자본비용이 더 크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Park and Shin, 2014). 그러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주석에 소송 정보를 공시한 기업들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해당 정보의 유용성이 확인되지 않아 K-IFRS 도입이

후 소송과 관련하여 위험인식 수준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Kim and Shin, 2019). 특히 회계분식 관련 감사인에 대한 소송 건수와 규모가 커지고 있어 피감사기업의 소송에 대한 감사인의 위험인식도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을 수 있으므로 피감사기업의 소송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은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송 강조사항에 대한 [연구가설 2-2]는 아래와 같이 귀무가설로 설정한다.¹¹⁾

연구가설 2-2: 소송 강조사항을 공시한 기업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공시하지 않은 기업과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은 주로 감가상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K-IFRS 도입 이후 감가상각 회계정책을 변경한 기업들은 낮은 부채비율, 부진한 영업성과 및 작은 기업규모의 특성을 나타내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후 이익의 가치관련성은 낮아지지만 장부가액의 가치관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and Gong, 2014). 회계정책 및 추정 변경과 달리 오류수정은 재무제표 작성 관련 누락이나 왜곡표시를 수정하는 것으로 발견된 중요한 오류는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하기 때문에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기오류수정은 일부 기업에 의해 기회주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Park et al., 2014), 최근에는 감사인 교체와 관련하여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Park and Chung, 2019) 또는 회계처리 기준의 개정 및 테마감리 후 감독지침 제정에 따른 자발적 수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Hwang et al., 2020).¹²⁾ 따라서 전기오류수정 및 재무제표 재작성과 관련한 과거 감사인의 부정적인 인식이 K-IFRS 도입 이후에도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사항이다.

연구가설 2-3: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강조사항을 공시한 기업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공시하지 않은 기업과 다르지 않다.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월)에 따라 2016 회계연도부터 강조사항에 신규로 추가되었다. Ha et al.(2018)는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핵심감사사항 기재는 감사시간을 증가시켜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음을 보여주었으며, 특이한 점은 수주산업 강조사항을 기재한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높은 감사시간이 감사보수의 증가로 이어지는 않았다. 이와 더불어 Song et al.(2020)는 수주산업 핵심감사제 적용기업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미적용기업과 다르지 않는다는 실증증거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감사인의 수주산업에 대한 감사위험 인식에 대해 일관된 결과가 제시되지 않으므로 수주산업 핵심감사제 강조사항 관련 연구가설은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11)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소송관련 사항이 포함되기 시작한 2016년 3월말 회계법인 상대 진행 중인 소송의 수는 84건, 소송금액은 약1.925억 원이었으나, 2018년 3월말과 2019년 3월말에는 각각 99건, 12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소송금액도 3,192억 원, 7,786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됨(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2016.9.9.;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2019.10.29.).

12)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13.9.2.)'2012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분석'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18.8.8.)'2017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연구가설 2-4: 수주산업 핵심감사제 강조사항을 공시한 기업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공시하지 않은 기업과 다르지 않다.

연구가설 2-5: 보고기간 후 사건을 공시한 기업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공시하지 않은 기업과 다르지 않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 중요한 경우에는 K-IFRS 제1010호 및 감사기준서 706에 따라 주식 공시 및 강조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 Jung et al.(2019)는 보고기간 후 사건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한 기업일수록 감사보고시차가 길게 나타난다는 실증결과를 통해 해당 정보가 감사위험과 관련됨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연구에서 보고기간 후 사건이 계속기업 불확실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의 강조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업들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해당 기업들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Jung et al.(2019)의 보고기간 후 사건과 감사위험 간의 관련성을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기업을 제외한 경우에도 유지될지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연구가설 2-5]는 다음과 같이 방향성 없이 설정한다.

III. 연구방법론

3.1 연구표본

〈Table 3〉에서는 본 연구의 표본 선정절차를 제시한다. 연구표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최초로 적용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 중, FnGuide DB에서 자산총계 등 기초 재무자료를 구할 수 있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9년 간 FnGuide DB 상 최초 이용가능한 표본 27,033 회사-연도 표본 중, 재무제표의 동질성과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12월이 아닌 표본(871 회사-연도)과 금융 및 보험업종 표본(1,971 회사-연도)을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등의 자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TS2000 DB에서 자료를 구

〈Table 3〉 표본의 선정과정

구분	전체표본 (회사-연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자산총계 등 재무자료를 FnGuide에서 구할 수 있는 표본	27,033
(1) 결산종료일이 12월 말인 아닌 표본	-871
(2) 금융 및 보험업종에 속하는 표본	-1,971
(3) TS2000 DB에서 감사보수, 감사시간 등 자료를 구할 수 없는 표본	-9,720
(4) 시가총액, 매출액성장률 등 통제변수를 구할 수 없는 표본	-630
(5) 계속기업 강조사항을 기재한 표본	-350
최종 표본	13,491

할 수 없는 표본(9,720 회사-연도)을 제외하였다. 이후 시가총액, 매출액성장률 등 연구모형 상 통제변수를 구할 수 없는 표본(630 회사-연도)을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계속기업 강조사항을 기재한 표본 외의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에 해당하므로 감사보고서 상 계속기업 강조사항을 기재한 350 회사-연도 표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3,491 회사-연도를 본 연구의 표본으로 확정하였다.

〈Table 4〉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분포를 제시한다. 〈Table 4〉 Panel A에서와 같이, 계속기업 강조사항 외의 강조사항을 기재한 표본은 2,721 회사-연도에 해당하여 전체 표본의 약 20.2%를 차지하였다. 연도별로는 2011 사업연도 이후 20% 초반 비율을 유지하다가 2014년과 2015년에 18% 전후로 하락한 후, 2016년과 2017년에 20% 중반대를 넘다가 핵심감사사항 기재가 의무화된 2018년 이후에는 강조사항 기재가 13% 전후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Panel B에서는 연도별 감사보고서 상 강조사항 유형에 따른 분포를 제시하는데, 전체적으로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영업환경의 변화 순으로 강조사항 기재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특히 수주산업 관련 특수관계자 거래는 2016년 이후 기재됨을 확인가능하다. 또한 동일회사가 감사보고서에 2개 이상의 강조사항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Table 4〉 Panel B의 연도별 및 합계(3,233 회사-연도)는 Panel A의 연도별 및 합계(2,721 회사-연도)보다 크게 나타난다. 〈Table 4〉 Panel C는 표본의 산업별 분포를 나타내는데, 대부분의 표본이 제조업(약 66.4%)에 속하며, 다음으로 정보통신업(약 11.2%), 도소매업(약 8.7%) 및 전 문과학기술업(약 6.2%)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연구모형

본 절에서는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 기재, 강조사항 유형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먼저 선행연구(Simunic and Stein, 1996; Kwon and Kim, 2001; Kwon et al., 2014; Cho et al., 2017; Jung and Jeong, 2019)를 참조하여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결정모형인 연구모형(1)을 설정한다. 종속변수인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사업보고서 상 기재된 총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TS2000 DB에서 자료를 수집 후 각각 자연로그를 취한 값(LNAF, LNAH)으로 변환하였다. 관심변수인 감사보고서 상 강조사항의 기재 여부(Emphasis)는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 문단을 기재한 경우 1의 값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부여하는 지시변수로 지정하였다. 또한 연구모형(2)에서는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상의 구분기준을 참조하여, 관심변수를 7가지의 강조사항 기재 유형(Type)에 따라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영업환경 변화 관련 강조사항(Emp_OE),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강조사항(Emp_RPT), 소송 강조사항(Emp_LIT),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관련 강조사항(Emp_MIS), 수주산업 강조사항(Emp_ORD), 보고기간 후 사건 강조사항(Emp_MOI) 및 기타 강조사항 문단(Emp_OTH) 기재 시 1의 값을 가지고, 각각 그러한 강조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0의 값을 부여하는 지시변수를 지정하였다. 만약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 기재나 해당 유형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관련성이 존재한다면, 연구모형(1) 또는 (2)에서 β_1 의 유의한 부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4〉 표본의 분포 (N=13,491)

〈Panel A〉 연도별 감사보고서 상 강조사항 기재 여부에 따른 분포

연도	강조사항 미기재	강조사항 기재	합계	기재비율
2011	955	306	1,261	24.3%
2012	951	356	1,307	27.2%
2013	1,072	271	1,343	20.2%
2014	1,161	250	1,411	17.7%
2015	1,180	263	1,443	18.2%
2016	1,142	407	1,549	26.3%
2017	1,216	410	1,626	25.2%
2018	1,512	228	1,740	13.1%
2019	1,581	230	1,811	12.7%
합계	10,770	2,721	13,491	20.2%

〈Panel B〉 연도별 감사보고서 상 강조사항 유형에 따른 분포

연도	영업환경의 변화 (Emp_OE)	특수관계자 거래 (Emp_RPT)	소송 (Emp_LITI)	회계변경, 오류수정 (Emp_MIS)	수주산업 (Emp_ORD)	보고기간 후 사건 (Emp_MOI)	기타 (Emp_OTH)	합계
2011	50	153	11	93	0	7	74	388
2012	56	146	10	181	0	4	29	426
2013	60	140	14	59	0	4	41	318
2014	68	94	17	52	0	6	57	294
2015	75	96	16	54	0	4	63	308
2016	101	86	14	86	175	14	35	511
2017	79	82	16	80	185	16	44	502
2018	54	56	8	89	19	26	3	255
2019	54	48	12	96	3	16	2	231
합계	597	987	150	853	395	133	348	3,233
비율	19.8%	27.6%	4.2%	23.9%	11.1%	3.7%	9.7%	100.0%

〈Panel C〉 산업별 분포

구분/산업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창고	정보통신	과학기술	기타	계
표본수	8,956	421	1,174	219	1,508	841	372	13,491
비율	66.4%	3.1%	8.7%	1.6%	11.2%	6.2%	2.8%	100.0%

연구모형(1) 및 (2)에 포함된 감사보수 및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모형에서 먼저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자산총계(SIZE), 기업 특유 감사위험과 관련성이 높은 부채비율(LEV)을 고려하였고, 해당 변수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시간과 각각 양의 관련성이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Rho et al., 2004). 회사의 대형 감사인 선임(BIG4) 및 자산이익률(ROA)도 감사노력 투입 등 감사인의 위험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고려하였고, 선행연구에 따라 각각 양(+), 음(-)의 연관성이 예측된다. 기업에 대한 최대주주 지분율(LAR)과 외국인의 투자 지분율(FOR)은 기업지배구조의 대용치(proxy)로 포함하였고, 최대주주 및 외국인 투자자의 높은 재무보고품질에 대한 요구 가능성 증가로 감사보수 등과 양의 관련성이 사전적으로 예상된다. 적정 외 감사의견 기재(OPN)와 당기순손실 보고 여부(LOSS)는 회사의 감사위험 상승요인으로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는 양의 관련성이 예측된다. 선행연구(Kwon and Kim, 2001; Rho et al., 2004)에 의하면, 회사의 유동비율(QR), 성장성 정도(BTM), 감사인의 교체 여부(CHN)는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차별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회계감사의 복잡성 정도(ARINV) 및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비중(CFO)이 감사위험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였다. 한편 기업의 산업별(ID) 및 연도별(YD) 고정효과(fixed effect)를 포함하였고, 마지막으로 모형의 모든 연속형 변수의 값 중 상·하위 기준으로 각각 1%를 넘는 극단치는 해당 상하위의 1% 수준으로 그 값을 조정(winsorization)하였다.

연구모형(1): 강조사항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분

석모형, i 는 기업, t 는 연도를 의미

$$\begin{aligned} LNAF_{i,t}/LNAH_{i,t} = & \beta_0 + \beta_1 Emphasis_{i,t} + \beta_2 SIZE_{i,t} \\ & + \beta_3 LEV_{i,t} + \beta_4 BIG4_{i,t} + \beta_5 ROA_{i,t} + \beta_6 LAR_{i,t} \\ & + \beta_7 FOR_{i,t} + \beta_8 OPN_{i,t} + \beta_9 LOSS_{i,t} \\ & + \beta_{10} ARINV_{i,t} + \beta_{11} CFO_{i,t} + \beta_{12} BTM_{i,t} \\ & + \beta_{13} QR_{i,t} + \beta_{14} GRW_{i,t} + \beta_{15} CHN_{i,t} \\ & + \beta_{16} CON + ID + YD + \epsilon_{i,t} \end{aligned}$$

연구모형(2): 강조사항 유형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분석모형, i 는 기업, t 는 연도를 의미

$$\begin{aligned} LNAF_{i,t}/LNAH_{i,t} = & \beta_0 + \beta_1 Type(Emp - OE, RPT, \\ & LITI, MIS, ORD, MOI, OTH)_{i,t} + \beta_2 SIZE_{i,t} \\ & + \beta_3 LEV_{i,t} + \beta_4 BIG4_{i,t} + \beta_5 ROA_{i,t} + \beta_6 LAR_{i,t} \\ & + \beta_7 FOR_{i,t} + \beta_8 OPN_{i,t} + \beta_9 LOSS_{i,t} \\ & + \beta_{10} ARINV_{i,t} + \beta_{11} CFO_{i,t} + \beta_{12} BTM_{i,t} \\ & + \beta_{13} QR_{i,t} + \beta_{14} GRW_{i,t} + \beta_{15} CHN_{i,t} \\ & + \beta_{16} CON + ID + YD + \epsilon_{i,t} \end{aligned}$$

〈종속변수〉

- LNAH : 감사보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 LNAF : 감사시간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독립변수〉

- Emphasis :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 문단이 포함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 Emp_OE : 중요한 영업환경 변화 관련 강조사항 문단이 포함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 Emp_RPT :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강조사항 문단이 포함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 Emp_LITI : 소송 관련 강조사항 문단이 포함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 Emp_MIS :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관련 강조사항 문단이 포함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 Emp_ORD : 수주산업 관련 강조사항 문단이 포함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Emp_MOI : 보고기간 후 사건 강조사항 문단이 포함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Emp_OTH :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상기사항 외 강조사항 문단이 포함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통제변수>

- SIZE* : 기말 자산총계의 자연로그를 취한 값;
- LEV* : 기말 부채총계를 자산총계 값으로 나눈 값, 부채비율;
- BIG4* : 대형 감사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회계법인)을 선임 시 1, 아닌 경우 0의 값;
- ROA* : 당기순이익을 기말 자산총계 값으로 나눈 값, 자산이익률;
- LAR* : 기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 비율;
- FOR* : 기말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비율;
- OPN* :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 LOSS* : 회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 ARINV* : 기말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합계를 기말 자산총계로 나눈 비율;
- CFO* :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기말 자산총계로 나눈 비율;
- BTM* :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 비율, 즉 총자본의 장부가치를 시장가치로 나눈 비율;
- QR* :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 유동 비율;
- GRW* : 매출액 증감액을 전기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 매출액성장률;
- CHN* : 당기 감사인이 변경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 CON* : 당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종속회사가 존재할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 ID* : 산업별 고정효과(대분류 산업분류 기준);
- YD* : 연도별 고정효과.

IV. 실증분석 결과

4.1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 (*LNAF*, *LNAH*) 평균은 각각 11.323 및 6.990으로 이를 환산하면 각각 82,707천원 및 1,086시간에 해당한다. 감사보고서 상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는 표본의 약 20.2%에 해당하고, 유형별로는 특수관계자(6.7%),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5.9%), 중요한 영업환경 변경(4.4%) 순으로 평균 기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규모(*SIZE*)는 16.652 ~ 23.800으로 비교적 넓은 범위로 분포되어 있다. 표본의 부채비율(*LEV*)은 평균 약 37.4%에 해당하였고, 표본의 절반에 해당하는 회사(약 49.6%)가 대형감사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다(*BIG4*). 표본의 최대주주(*LAR*) 및 외국인(*FOR*) 투자지분 비율의 평균은 각각 40.1%와 6.8%에 달하였고, 당기순손실을 보고한 회사(*LOSS*)는 평균 27.6%였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FO*)은 자산 대비 약 4.6%에 해당하였고, 유동비율(*QR*)은 평균 304.8%를 보였으며 약 78%의 회사가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CON*)하였다.

4.2 상관관계

<Table 6>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에 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 기재(*Emphasis*) 자체는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과 각각 -0.045,

〈Table 5〉 기술통계

변수 ¹⁾	평균	표준편차	1%	25%	중위수	75%	99%
LNAF	11.323	0.724	10.043	10.840	11.156	11.608	13.795
LNAH	6.990	0.732	5.438	6.540	6.860	7.323	9.452
Emphasis	0.202	0.401	0.000	0.000	0.000	0.000	1.000
Emp_OE	0.044	0.206	0.000	0.000	0.000	0.000	1.000
Emp_RPT	0.067	0.250	0.000	0.000	0.000	0.000	1.000
Emp_LITI	0.009	0.093	0.000	0.000	0.000	0.000	0.000
Emp_MIS	0.059	0.235	0.000	0.000	0.000	0.000	1.000
Emp_ORD	0.028	0.166	0.000	0.000	0.000	0.000	1.000
Emp_MOI	0.007	0.084	0.000	0.000	0.000	0.000	0.000
Emp_OTH	0.026	0.159	0.000	0.000	0.000	0.000	1.000
SIZE	19.023	1.383	16.652	18.099	18.765	19.667	23.800
LEV	0.374	0.201	0.028	0.209	0.371	0.523	0.833
BIG4	0.496	0.500	0.000	0.000	0.000	1.000	1.000
ROA	0.016	0.112	-0.402	-0.008	0.026	0.064	0.277
LAR	0.401	0.165	0.074	0.277	0.396	0.514	0.776
FOR	0.068	0.104	0.000	0.007	0.023	0.079	0.518
OPN	0.003	0.052	0.000	0.000	0.000	0.000	0.000
LOSS	0.276	0.447	0.000	0.000	0.000	1.000	1.000
ARINV	0.256	0.172	0.000	0.127	0.231	0.358	0.790
CFO	0.046	0.096	-0.246	0.000	0.044	0.093	0.323
BTM	1.040	0.734	0.092	0.500	0.861	1.388	3.679
QR	3.048	4.403	0.217	1.030	1.649	3.107	31.769
GRW	0.070	0.377	-0.651	-0.080	0.028	0.143	1.682
CHN	0.175	0.380	0.000	0.000	0.000	0.000	1.000
CON	0.777	0.416	0.000	1.000	1.000	1.000	1.000

주1) 변수의 정의

- LNAF : 감사보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LNAH : 감사시간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Emphasis :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 문단이 포함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Emp_OE : 중요한 영업환경 변화 관련 강조사항 문단이 포함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Emp_RPT :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강조사항 문단이 포함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Emp_LITI : 소송 관련 강조사항 문단이 포함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Emp_MIS :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관련 강조사항 문단이 포함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Emp_ORD : 수주산업 관련 강조사항 문단이 포함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Emp_MOI : 보고기간 후 사건 강조사항 문단이 포함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Emp_OTH :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상기 사항 외 강조사항 문단이 포함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SIZE : 기말 자산총계의 자연로그를 취한 값;
LEV : 기말 부채총계를 자산총계 값으로 나눈 값, 부채비율;
BIG4 : 대형 감사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회계법인)을 선임 시 1, 아닌 경우 0의 값;
ROA : 당기순이익을 기말 자산총계 값으로 나눈 값, 자산이익률;
LAR : 기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 비율;
FOR : 기말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비율;
OPN :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LOSS : 회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ARINV : 기말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합계를 기말 자산총계로 나눈 비율;
CFO :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기말 자산총계로 나눈 비율;
BTM :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 비율, 즉 총자본의 장부가치를 시장가치로 나눈 비율;
QR :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 유동비율;
GRW : 매출액 증감액을 전기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 매출액성장률;
CHN : 당기 감사인이 변경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CON : 당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종속회사가 존재할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Table 6〉 상관관계 분석 (N=13,491)

변수	LNAF	LNAH	Emphasis	SIZE	LEV	BIG4	ROA	LAR	FOR	OPN	LOSS	ARINV	CFO	BTM	QR	GRW	CHN
LNAH	0.876																
	0.000																
Emphasis	-0.045	-0.060															
	0.000	0.000															
SIZE	0.785	0.795	-0.080														
	0.000	0.000	0.000														
LEV	0.227	0.195	0.103	0.189													
	0.000	0.000	0.000	0.000													
BIG4	0.437	0.484	-0.180	0.403	0.044												
	0.000	0.000	0.000	0.000	0.000												
ROA	0.007	0.030	-0.134	0.189	-0.247	0.097											
	0.412	0.001	0.000	0.000	0.000	0.000											
LAR	0.010	0.061	-0.090	0.159	-0.093	0.162	0.194										
	0.26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FOR	0.446	0.431	-0.087	0.493	-0.104	0.254	0.187	-0.03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OPN	0.022	0.015	0.034	-0.045	0.079	-0.015	-0.152	-0.053	-0.015								
	0.010	0.089	0.000	0.000	0.000	0.077	0.000	0.000	0.089								
LOSS	-0.013	-0.032	0.133	-0.178	0.218	-0.094	-0.661	-0.211	-0.160	0.069							
	0.146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ARINV	-0.126	-0.135	0.010	-0.104	0.261	-0.069	0.152	-0.042	-0.093	-0.027	-0.131						
	0.000	0.000	0.256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2	0.000						
CFO	0.047	0.048	-0.118	0.130	-0.135	0.097	0.532	0.122	0.188	-0.074	-0.378	-0.06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BTM	0.027	0.071	-0.031	0.231	-0.011	0.048	0.025	0.236	-0.055	-0.044	-0.039	-0.038	-0.045				
	0.001	0.000	0.000	0.000	0.208	0.000	0.00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QR	-0.183	-0.176	-0.047	-0.160	-0.534	-0.053	0.050	0.038	0.027	-0.011	-0.042	-0.179	-0.017	-0.025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2	0.224	0.000	0.000	0.044	0.004			
GRW	-0.030	-0.036	0.032	-0.016	0.002	-0.013	0.197	-0.017	0.003	-0.034	-0.144	0.120	0.075	-0.107	0.011		
	0.000	0.000	0.000	0.070	0.777	0.126	0.000	0.049	0.772	0.000	0.000	0.000	0.000	0.000	0.192		
CHN	-0.008	-0.001	0.027	-0.079	0.036	-0.112	-0.052	-0.030	-0.072	0.028	0.058	0.001	-0.052	-0.061	0.012	0.019	
	0.380	0.899	0.002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1	0.000	0.893	0.000	0.000	0.151	0.029	
CON	0.301	0.333	-0.033	0.257	0.041	0.095	-0.006	-0.072	0.140	0.014	0.007	-0.098	-0.015	0.014	-0.050	-0.013	-0.029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500	0.000	0.000	0.094	0.414	0.000	0.079	0.105	0.000	0.128	0.001

주1) 변수 설명은 〈Table 5〉 참조; 주2) pearson 상관계수이며, 표 아래의 수치는 p값을 나타냄

-0.060의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 기재(*Emphasis*)는 부채비율(*LEV*), 적정의견 외 감사의견(*OPN*), 손실보고 여부(*LOSS*), 매출액 성장률(*GRW*)와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기업규모(*SIZE*), 대형 감사인 더미 변수(*BIG4*), 자산이익률(*ROA*), 최대주주(*LAR*) 및 외국인투자자 지분율(*FOR*) 등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상관관계에 관한 분석결과로는 감사보고서의 기재나 그 유형과 감사보수 등과의 개별 변수 간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후 절에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한 이후의 회귀분석 결과를 통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4.3 강조사항 기재기업의 특성

본 연구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이외의 강조사항이 감사위험 정보를 전달하는지를 조사하므로 선행연구에서 위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기업은 표본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격적인 가설검증에 앞서 위의 선행연구결과가 본 연구의 표본에서도 유지되는지를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기업(N=350)과 그 외 강조사항 기재기업(N=2,721)의 주요 재무적인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기업 기재기업은 계속기업 이외 기재기업에 비해 기업규모가 작고, 부채비율은 높으며, 수익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

〈Table 7〉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기업과 그 외 강조사항 기재기업의 특성

변수 ¹⁾	계속기업 기재기업(N=350)	계속기업 이외 기재기업(N=2,721)	t검정 (평균차이검정)	강조사항 미기재기업 (N=10,770)
<i>LNAF</i>	11.545	11.258	-7.19***	11.339
<i>LNAH</i>	7.058	6.903	-3.81***	7.012
<i>SIZE</i>	18.516	18.804	3.77***	19.079
<i>LEV</i>	0.699	0.416	-23.47***	0.364
<i>BIG4</i>	0.454	0.318	-5.10***	0.542
<i>ROA</i>	-0.191	-0.014	19.95***	0.023
<i>LAR</i>	0.281	0.371	9.21***	0.408
<i>FOR</i>	0.021	0.050	5.98***	0.072
<i>OPN</i>	0.034	0.006	-5.13***	0.002
<i>LOSS</i>	0.843	0.394	-16.59***	0.246
<i>ARINV</i>	0.195	0.259	6.48***	0.255
<i>CFO</i>	-0.028	0.023	8.43***	0.052
<i>BTM</i>	0.670	0.995	7.57***	1.051
<i>QR</i>	1.161	2.640	7.01***	3.151
<i>GRW</i>	0.042	0.094	1.84*	0.064
<i>CHN</i>	0.354	0.195	-6.88***	0.169
<i>CON</i>	0.743	0.751	0.31	0.784

1) 변수 설명은 〈Table 5〉 참조

2) ***, **, *은 유의수준 1%, 5%, 10%에서 각각 유의함

무위험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감사위험으로 이어져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측면에서도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기간에 대해서도 계속기업 기재기업의 위험이 다른 강조사항 기재기업에 비해 차별적으로 높다는 선행연구(Park et al., 2015) 및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의 결과가 유지됨을 의미한다. 한편 <Table 7>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계속기업 기재기업은 강조사항 미기재기업 대비 유의하게 작은 기업규모에도 불구하고 감사보수는 유의하게 높고, 감사시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계속기업 관련 감사위험은 감사인의 노력으로 완화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계속기업 이외 기재기업도 강조사항 미기재기업 대비 기업규모가 작고, 부채비율이 높으며, 수익성이 낮아 재무위험이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강조사항 미기재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어 계속기업 기재기업과 감사위험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계속기업 이외 강조사항이 감사위험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계속기업 기재기업은 감사위험 측면에서 특성이 상이하므로 이를 배제한 분석이 적절할 것이다.

4.4 감사보고서 강조사항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계속기업 이외 강조사항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8>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의 수정 R^2 은 0.728~0.744로 나타났고, F-value도 유의수준 1% 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은 적합하게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에 대한 진단 결과 역시 분산팽창계수의 최대값이 3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8>에 나타난 분석 결과, 강조사항 기재기업(*Emphasis*)은 감사보수(*LNAF*) 및 감사시간(*LNAH*)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계속기업 이외 강조사항 관련 이벤트도 감사인이 중요하게 고려하여 감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감사인이 강조사항에 기재된 특정사건의 발생이나 회사의 특성을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중요한 정보를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정보이용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강조사항을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별도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계속기업 기재기업을 포함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종속변수가 감사보수(*LNAF*)와 감사시간(*LNAH*)인 경우 강조사항 기재기업(*Emphasis*)에 대한 계수 값은 각각 0.063(t-value 5.81)과 0.066(t-value 6.53)이었다. <Table 8>에서 종속변수가 감사보수(*LNAF*)와 감사시간(*LNAH*)인 경우 강조사항 기재기업(*Emphasis*)에 대한 계수 값은 각각 0.063(t-value 4.63)과 0.066(t-value 5.85)으로 계속기업 기재기업을 포함한 경우보다 낮아 이 경우 계속기업 강조사항 기재기업의 감사위험 반영도가 높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통제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확인하면 기업의 규모(*SIZE*), 대형 감사인 더미변수(*BIG4*), 외국인 지분율(*FOR*), 적정 외 감사의견(*OPN*), 손실 보고 여부(*LOSS*), 감사인 교체(*CHN*),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CON*)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모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회사의 수익성(*ROA*),

<Table 8> 감사보고서 강조사항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LNAF_{i,t}/LNAH_{i,t} = \beta_0 + \beta_1 Emphasis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BIG4_{i,t} + \beta_5 ROA_{i,t} + \beta_6 LAR_{i,t} + \beta_7 FOR_{i,t} + \beta_8 OPN_{i,t} + \beta_9 LOSS_{i,t} + \beta_{10} ARINV_{i,t} + \beta_{11} CFO_{i,t} + \beta_{12} BTM_{i,t} + \beta_{13} QR_{i,t} + \beta_{14} GRW_{i,t} + \beta_{15} CHN_{i,t} + \beta_{16} CON + ID + YD + \epsilon_{i,t}$$

변수 ¹⁾	(1) 종속변수 = 감사보수(LNAF)		(2) 종속변수 = 감사시간(LNAH)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절편	4.052	26.87***	-0.386	-2.85***
<i>Emphasis</i>	0.063	4.63***	0.066	5.88***
<i>SIZE</i>	0.378	47.24***	0.370	49.82***
<i>LEV</i>	0.114	2.40**	0.016	0.36
<i>BIG4</i>	0.253	17.14***	0.338	25.10***
<i>ROA</i>	-0.499	-7.85***	-0.395	-6.23***
<i>LAR</i>	-0.256	-5.47***	-0.099	-2.38**
<i>FOR</i>	0.374	4.91***	0.210	2.97***
<i>OPN</i>	0.305	2.85***	0.285	2.92***
<i>LOSS</i>	0.061	4.80***	0.059	4.93***
<i>ARINV</i>	-0.031	-0.67	-0.031	-0.69
<i>CFO</i>	0.017	0.30	-0.066	-1.12
<i>BTM</i>	-0.116	-10.34***	-0.072	-7.67***
<i>QR</i>	-0.006	-3.55***	-0.008	-4.07***
<i>GRW</i>	-0.012	-1.15	-0.015	-1.61
<i>CHN</i>	0.088	8.78***	0.113	12.65***
<i>CON</i>	0.135	8.26***	0.200	14.37***
<i>YD</i>	포함		포함	
<i>ID</i>	포함		포함	
F값	220.06***		258.35***	
수정R ²	0.728		0.744	
N	13,491		13,491	

- 1) 변수설명 : <Table 5>의 설명 참조
-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 5%, 10% 기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3)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분산팽창계수(VIF) 통계량은 최대 3 이하임
- 4) t값은 회사(firm)별 clustering 후 기준 통계량을 의미

최대주주 지분비율(LAR), 성장성(GRW) 및 유동 비율(QR)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모두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여 감사위험에 기반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4.5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유형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Table 9>는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강조사항의 7 가지 기재 유형별로 감사인의 대응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Table 9>의 Panel A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종속변수가 감사보수(LNAF)인 경우 영업환경 변화(Emp_OE), 특수관계자 거래(Emp_RPT), 소송(Emp_LITI) 및 수주산업(Emp_ORD)의 계수 값은 각각 0.043(t-value 2.01), 0.087(t-value 3.09), 0.141(t-value 2.78) 및 0.063(t-value 2.48)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종속변수가 감사시간(LNAH)인 경우에도 영업환경 변화(Emp_OE), 특수관계자 거래(Emp_RPT)의 계수 값은 각각 0.044(t-value 2.31)와 0.052(t-value 2.21)로 5% 수준에서 유의하고,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Emp_MIS) 및 수주산업(Emp_ORD)의 계수 값은 0.029(t-value 1.71) 및 0.093(t-value 4.13)으로 각각 10% 및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소송(Emp_LITI)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Choi et al.(202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감사위험을 반영하는 정보는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 중 하나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Table 9>의 결과는 강조사항 유형 중 영업환경 변화(Emp_OE), 특수관계자 거래(Emp_RPT), 소송(Emp_LITI), 수주산업(Emp_ORD) 및 보고기간 후 사건(Emp_MOI)은 감사위험을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영업환경 변화 및 특수관계자 거래 강조사항은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모두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감사인이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감사위험과의 관련성을 인지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본 [연구가설 2-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소송은 특성상 감사위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더라도 감사인의 노력으로 위험수준을 낮추는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위험프리미엄의 형태로 감사보수에 반영된다(Bronson et al., 2017).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소송(Emp_LITI)의 감사보수에 대한 유의한 결과는 최근 감사인에 대한 법적환경이 강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여전히 소송을 감사위험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수주산업(Emp_ORD)의 결과는 선행연구(Ha et al., 2018)의 결과와 유사하며, 2018년 신감사보고서에서 해당 정보를 핵심감사사항으로 분류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회계변경과 오류수정(Emp_MIS)은 감사시간과만 유의수준 10% 하의 관련성을 보이는 등 상대적으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낮은 유의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2017년 제약·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자산인식 관련 오류수정과 2018년 新회계기준서(금융상품, 수익) 도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사인이 감사위험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2019.5.3., 2019.8.14.). 이와 더불어 보고기간 후 사건(Emp_MOI)의 결과는 계속기업 기재기업의 영향을 배제할 때 감사인이 해당 정보를 감사위험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Table 9>의 Panel B는 연구모형(2)의 관심변수를 단일 강조사항 기재 여부 지시변수로 수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Table 9>의 Panel B의 분석결과는 Panel A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강조사항 유형 중 영업환경 변화(Emp_OE), 특수관계자 거래(Emp_RPT), 수주산업(Emp_ORD)는 감사보수(LNAF) 및 감사시간(LNAH) 모두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여 감사인의 감사위험 평가요소와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소송(Emp_LITI) 관련 강조사항은 Panel A와 유사하게 감사보수와만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이고, 감사시간과는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Emp_MIS) 관련 강조사항은 Panel A와는 달리 감사보수 및 시간과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 감사인이 해당 강조사항이 존

〈Table 9〉 감사보고서 강조사항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Panel A〉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유형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LNAF_{i,t}/LNAH_{i,t} = \beta_0 + \beta_1 Type(Emp - OE, RPT, LITI, MIS, ORD, MOI, OTH)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BIG4_{i,t} + \beta_5 ROA_{i,t} + \beta_6 LAR_{i,t} + \beta_7 FOR_{i,t} + \beta_8 OPN_{i,t} + \beta_9 LOSS_{i,t} + \beta_{10} ARINV_{i,t} + \beta_{11} CFO_{i,t} + \beta_{12} BTM_{i,t} + \beta_{13} QR_{i,t} + \beta_{14} GRW_{i,t} + \beta_{15} CHN_{i,t} + \beta_{16} CON + ID + YD + \epsilon_{i,t}$$

변수 ¹⁾	(1) 종속변수 = 감사보수(LNAF)		(2) 종속변수 = 감사시간(LNAH)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절편	4.049	26.84***	-0.395	-2.91***
Emp_OE	0.043	2.01**	0.044	2.31**
Emp_RPT	0.087	3.09***	0.052	2.21**
Emp_LITI	0.141	2.78***	0.024	0.42
Emp_MIS	0.024	1.20	0.029	1.71*
Emp_ORD	0.063	2.48**	0.093	4.13***
Emp_MOI	0.027	0.43	0.072	1.55
Emp_OTH	0.037	1.36	0.091	3.82***
SIZE	0.377	47.24***	0.370	49.83***
LEV	0.112	2.37**	0.014	0.32
BIG4	0.258	17.36***	0.337	24.74***
ROA	-0.497	-7.78***	-0.396	-6.21***
LAR	-0.255	-5.46***	-0.097	-2.33**
FOR	0.376	4.93***	0.211	2.99***
OPN	0.307	2.95***	0.282	2.96***
LOSS	0.062	4.88***	0.059	4.94***
ARINV	-0.033	-0.72	-0.028	-0.64
CFO	0.019	0.33	-0.063	-1.08
BTM	-0.116	-10.35***	-0.072	-7.64***
QR	-0.006	-3.53***	-0.008	-4.07***
GRW	-0.011	-1.11	-0.016	-1.70*
CHN	0.089	9.01***	0.112	12.62***
CON	0.133	8.18***	0.200	14.33***
YD	포함		포함	
ID	포함		포함	
F값	188.08***		219.94***	
수정R ²	0.729		0.744	
N	13,491		13,491	

- 1) 변수설명 : 〈Table 5〉의 설명 참조
-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 5%, 10% 기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3)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분산팽창계수(VIF) 통계량은 최대 3 이하임
- 4) t값은 회사(firm)별 clustering 후 기준 통계량을 의미

(Table 9) 감사보고서 강조사항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계속)

(Panel B)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유형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LNAF_{i,t}/LNAH_{i,t} = \beta_0 + \beta_1 Type(Emp - OE, RPT, LITI, MIS, ORD, MOI, OTH)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BIG4_{i,t} + \beta_5 ROA_{i,t} + \beta_6 LAR_{i,t} + \beta_7 FOR_{i,t} + \beta_8 OPN_{i,t} + \beta_9 LOSS_{i,t} + \beta_{10} ARINV_{i,t} + \beta_{11} CFO_{i,t} + \beta_{12} BTM_{i,t} + \beta_{13} QR_{i,t} + \beta_{14} GRW_{i,t} + \beta_{15} CHN_{i,t} + \beta_{16} CON + ID + YD + \epsilon_{i,t}$$

변수 ¹⁾	(1) 종속변수 = 감사보수(LNAF)							(2) 종속변수 = 감사시간(LNAH)						
	회귀계수(t값)							회귀계수(t값)						
절편	4.072 (26.95***)	4.065 (26.92***)	4.070 (27.01***)	4.072 (26.95***)	4.065 (26.91***)	4.069 (26.94***)	4.070 (26.95***)	-0.364 (-2.68***)	-0.368 (-2.71***)	-0.364 (-2.68***)	-0.365 (-2.68***)	-0.375 (-2.76***)	-0.368 (-2.71***)	-0.373 (-2.75***)
Emp_OE	0.064 (3.05***)							0.057 (3.09***)						
Emp_RPT		0.097 (3.44***)							0.058 (2.52**)					
Emp_LITI			0.168 (3.35**)							0.045 (0.82)				
Emp_MIS				0.041 (2.11***)							0.041 (2.38***)			
Emp_ORD					0.065 (2.55**)							0.093 (4.14***)		
Emp_MOI						0.083 (1.25)							0.115 (1.44)	
Emp_OTH							0.019 (0.71)							0.077 (3.23***)
∑Controls	포함							포함						
YD	포함							포함						
ID	포함							포함						
F값	217.57***	218.69***	219.77***	219.39***	217.66***	217.60***	217.47***	254.39**	255.56***	253.87***	256.31***	254.36***	253.99***	254.72***
수정R ²	0.728	0.728	0.728	0.728	0.728	0.728	0.727	0.743	0.743	0.742	0.743	0.743	0.743	0.743
N	13,491							13,491						

- 1) 변수설명 : <Table 5>의 설명 참조
-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 5%, 10% 기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3)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분산팽창계수(VIF) 통계량은 최대 3 이하임
- 4) t값은 회사(firm)별 clustering 후 기준 통계량을 의미

재하는 경우 적극적인 감사대응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보고기간 후 사건(*Emp_MOI*)에 대해서는 Panel A의 결과와 같이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4.6 추가분석

4.6.1 감사보고서 개편 전의 강조사항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관련성

2018년 이후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별도문단 신설 등 감사보고서 개편으로 강조사항의 기재 빈도가 감소되어 감사인의 강조사항 문단을 통한 위험 전달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개편 이전에도 본 연구의 결과가 계속하여 유지되는지 여부를 추가 분석한다.

〈Table 10〉의 Panel A에서와 같이,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 기재는 감사보고서 개편 이전에도 감사보수 및 시간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여, 감사인의 위험평가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Table 10〉 Panel B와 같이 강조사항 유형 중 영업환경 변화(*Emp_OE*)에 대한 결과를 제외하고는 〈Table 9〉의 Panel B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감사보고서 개편과 무관하게 강조사항은 그 유형별로 감사인의 대응이 상이하여 자본시장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유용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영업환경 변화가 2018년 이전에 유의성이 없다는 분석 결과는, 영업환경 변화 관련 강조사항의 정보유용성이 감사보고서 개편 이후에 더욱 높아짐을 시사한다.

4.6.2 성향점수매칭 후 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식을 활용한 1:1 매칭표본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실증 분석결과의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각종 특성을 통제하여야 하는데, 감사보고서 상 강조사항이 기재된 회사와 미기재된 회사는 기업규모, 수익성에 따른 기업 특성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성향점수매칭에 따른 1:1 매칭표본을 구성하였고, 연구모형(1)과 (2)에 따른 분석을 재 실시하였다. 매칭기준은 caliper 1%, nearest neighbor 조건으로 1:1 기준하에 표본을 선정하였으나, 해당 성향점수를 기준으로 한 표본이 1배수에 해당하지 않아 최종표본은 4,951 회사-연도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다음의 〈Table 11〉과 같이 매칭표본을 활용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Table 8〉, 〈Table 9〉의 Panel B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 기존 연구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4.6.3 차분테스트 및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중복 기재의 결과

본 절에서는 차분변수를 이용하여 강조사항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Table 12〉 Panel A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차분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감사보고서 상의 강조사항 기재는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 본 연구결과가 강건하게 나타남을 제시한다.

한편, 감사보고서에 연속적으로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기재사건이 발생할 경우 감사인의 위험인식이 더욱 높을 수 있다. 〈Table 12〉 Panel B에서는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연속적으로 기재된 경우(*Repeat*)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간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결과

〈Table 10〉 감사보고서 개편 전 감사보고서 강조사항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Panel A〉 감사보고서 개편 전 감사보고서 강조사항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LNAF_{i,t}/LNAH_{i,t} = \beta_0 + \beta_1 Emphasis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BIG4_{i,t} + \beta_5 ROA_{i,t} + \beta_6 LAR_{i,t} + \beta_7 FOR_{i,t} + \beta_8 OPN_{i,t} + \beta_9 LOSS_{i,t} + \beta_{10} ARINV_{i,t} + \beta_{11} CFO_{i,t} + \beta_{12} BTM_{i,t} + \beta_{13} QR_{i,t} + \beta_{14} GRW_{i,t} + \beta_{15} CHN_{i,t} + \beta_{16} CON + ID + YD + \epsilon_{i,t}$$

변수 ¹⁾	(1) 종속변수 = 감사보수(LNAF)		(2) 종속변수 = 감사시간(LNAH)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절편	4.189	25.85***	-0.296	-1.97**
<i>Emphasis</i>	0.044	3.08***	0.068	5.42***
<i>SIZE</i>	0.373	43.66***	0.366	44.55***
<i>LEV</i>	0.113	2.20**	0.006	0.12
<i>BIG4</i>	0.182	11.36***	0.303	19.64***
<i>ROA</i>	-0.484	-6.49***	-0.399	-4.98***
<i>LAR</i>	-0.257	-5.00***	-0.111	-2.35**
<i>FOR</i>	0.433	5.42***	0.227	2.84***
<i>OPN</i>	0.322	1.48	0.295	1.69*
<i>LOSS</i>	0.053	3.65***	0.048	3.32
<i>ARINV</i>	-0.019	-0.37	-0.033	-0.63
<i>CFO</i>	0.010	0.16	-0.073	-1.01
<i>BTM</i>	-0.121	-10.15***	-0.075	-7.14***
<i>QR</i>	-0.006	-2.90***	-0.008	-3.45***
<i>GRW</i>	-0.015	-1.26	-0.022	-1.84*
<i>CHN</i>	0.040	3.55***	0.088	8.23***
<i>CON</i>	0.129	7.41***	0.207	13.08***
<i>YD</i>	포함		포함	
<i>ID</i>	포함		포함	
F값	148.60***		190.05***	
수정R ²	0.726		0.723	
N	9,940		9,940	

1) 변수설명 : 〈Table 5〉의 설명 참조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 5%, 10% 기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분산팽창계수(VIF) 통계량은 최대 3 이하임

4) t값은 회사(firm)별 clustering 후 기준 통계량을 의미

〈Table 10〉 감사보고서 개편 전 감사보고서 강조사항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계속)

〈Panel B〉 감사보고서 개편 전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유형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begin{aligned}
 LNAF_{i,t}/LNAH_{i,t} = & \beta_0 + \beta_1 Type(Emp - OE, RPT, LITI, MIS, ORD, MOI, OTH)_{i,t} + \beta_2 SIZE_{i,t} \\
 & + \beta_3 LEV_{i,t} + \beta_4 BIG4_{i,t} + \beta_5 ROA_{i,t} + \beta_6 LAR_{i,t} + \beta_7 FOR_{i,t} + \beta_8 OPN_{i,t} \\
 & + \beta_9 LOSS_{i,t} + \beta_{10} ARINV_{i,t} + \beta_{11} CFO_{i,t} + \beta_{12} BTM_{i,t} + \beta_{13} QR_{i,t} + \beta_{14} GRW_{i,t} \\
 & + \beta_{15} CHN_{i,t} + \beta_{16} CON + ID + YD + \epsilon_{i,t}
 \end{aligned}$$

변수 ¹⁾	(1) 종속변수 = 감사보수(LNAF)		(2) 종속변수 = 감사시간(LNAH)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절편	4.183	25.79***	-0.313	-2.07**
Emp_OE	0.018	0.79	0.033	1.66*
Emp_RPT	0.051	1.81*	0.031	1.23
Emp_LITI	0.140	2.64***	0.039	0.63
Emp_MIS	0.020	0.99	0.042	2.11**
Emp_ORD	0.064	2.54**	0.106	4.44***
Emp_MOI	0.052	0.61	0.122	1.19
Emp_OTH	0.027	0.96	0.091	3.83***
SIZE	0.373	43.74***	0.366	44.58***
LEV	0.109	2.13**	0.003	0.06
BIG4	0.185	11.44***	0.299	19.03***
ROA	-0.485	-6.50***	-0.403	-5.00***
LAR	-0.255	-4.96***	-0.107	-2.25**
FOR	0.436	5.45***	0.228	2.85***
OPN	0.313	1.50	0.278	1.69*
LOSS	0.054	3.72***	0.048	3.35***
ARINV	-0.018	-0.36	-0.028	-0.53
CFO	0.014	0.21	-0.068	-0.95
BTM	-0.120	-10.15***	-0.074	-7.09***
QR	-0.005	-2.86***	-0.008	-3.43***
GRW	-0.014	-1.25	-0.024	-1.95*
CHN	0.041	3.69***	0.087	8.11***
CON	0.129	7.38***	0.208	13.06***
YD	포함		포함	
ID	포함		포함	
F값	126.85***		160.75***	
수정R ²	0.726		0.724	
N	9,940		9,940	

- 1) 변수설명 : 〈Table 5〉의 설명 참조
-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 5%, 10% 기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3)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분산팽창계수(VIF) 통계량은 최대 3 이하임
- 4) t값은 회사(firm)별 clustering 후 기준 통계량을 의미

〈Table 11〉 매칭표본을 통한 추가분석

〈Panel A〉 매칭표본을 이용한 감사보고서 강조사항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LNAF_{i,t}/LNAH_{i,t} = \beta_0 + \beta_1 Emphasis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BIGA_{i,t} + \beta_5 ROA_{i,t} + \beta_6 LAR_{i,t} + \beta_7 FOR_{i,t} + \beta_8 OPN_{i,t} + \beta_9 LOSS_{i,t} + \beta_{10} ARINV_{i,t} + \beta_{11} CFO_{i,t} + \beta_{12} BTM_{i,t} + \beta_{13} QR_{i,t} + \beta_{14} GRW_{i,t} + \beta_{15} CHN_{i,t} + \beta_{16} CON + ID + YD + \epsilon_{i,t}$$

변수 ¹⁾	(1) 종속변수 = 감사보수(LNAF)		(2) 종속변수 = 감사시간(LNAH)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절편	4.445	22.35***	0.078	0.43
Emphasis	0.069	4.57***	0.071	5.55***
ΣControls	포함		포함	
YD	포함		포함	
ID	포함		포함	
F값	107.49***		141.98***	
수정R ²	0.665		0.709	
N	4,951		4,951	

- 1) 변수설명 : 〈Table 5〉의 설명 참조
-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 5%, 10% 기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3)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분산팽창계수(VIF) 통계량은 최대 3 이하임
- 4) t값은 회사(firm)별 clustering 후 기준 통계량을 의미

〈Panel B〉 매칭표본을 이용한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유형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LNAF_{i,t}/LNAH_{i,t} = \beta_0 + \beta_1 Type(Emp - OE, RPT, LITI, MIS, ORD, MOI, OTH)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BIGA_{i,t} + \beta_5 ROA_{i,t} + \beta_6 LAR_{i,t} + \beta_7 FOR_{i,t} + \beta_8 OPN_{i,t} + \beta_9 LOSS_{i,t} + \beta_{10} ARINV_{i,t} + \beta_{11} CFO_{i,t} + \beta_{12} BTM_{i,t} + \beta_{13} QR_{i,t} + \beta_{14} GRW_{i,t} + \beta_{15} CHN_{i,t} + \beta_{16} CON + ID + YD + \epsilon_{i,t}$$

변수 ¹⁾	(1) 종속변수 = 감사보수(LNAF)		(2) 종속변수 = 감사시간(LNAH)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절편	4.450	22.36***	0.066	0.36
Emp_OE	0.044	2.01**	0.045	2.33**
Emp_RPT	0.091	3.18***	0.058	2.49**
Emp_LITI	0.152	3.08***	0.038	0.71
Emp_MIS	0.028	1.38	0.024	1.35
Emp_ORD	0.068	2.39**	0.100	4.00***
Emp_MOI	0.021	0.33	0.086	1.90*
Emp_OTH	0.034	1.17	0.080	3.30***
ΣControls	포함		포함	
YD	포함		포함	
ID	포함		포함	
F값	93.25***		121.94***	
수정R ²	0.668		0.710	
N	4,951		4,951	

- 1) 변수설명 : 〈Table 5〉의 설명 참조
-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 5%, 10% 기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3)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분산팽창계수(VIF) 통계량은 최대 3 이하임
- 4) t값은 회사(firm)별 clustering 후 기준 통계량을 의미

〈Table 12〉 차분테스트 및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중복기재 결과

〈Panel A〉 차분테스트: 감사보고서 강조사항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begin{aligned} \Delta LNAF_{i,t} / \Delta LNAH_{i,t} = & \beta_0 + \beta_1 \Delta Emphasis_{i,t} + \beta_2 \Delta SIZE_{i,t} + \beta_3 \Delta LEV_{i,t} + \beta_4 \Delta BIGA_{i,t} \\ & + \beta_5 \Delta ROA_{i,t} + \beta_6 \Delta LAR_{i,t} + \beta_7 \Delta FOR_{i,t} + \beta_8 \Delta OPN_{i,t} + \beta_9 \Delta LOSS_{i,t} \\ & + \beta_{10} \Delta ARINV_{i,t} + \beta_{11} \Delta CFO_{i,t} + \beta_{12} \Delta BTM_{i,t} + \beta_{13} QR_{i,t} + \beta_{14} \Delta GRW_{i,t} \\ & + \beta_{15} \Delta CHN_{i,t} + \beta_{16} \Delta CON + ID + YD + \epsilon_{i,t} \end{aligned}$$

변수 ¹⁾	(1) 종속변수 = 감사보수 증분값($\Delta LNAF$)		(2) 종속변수 = 감사시간 증분값($\Delta LNAH$)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절편	0.050	4.74***	0.046	4.21***
$\Delta Emphasis$	0.018	2.59***	0.020	2.68***
$\Sigma \Delta Controls$	포함		포함	
YD	포함		포함	
ID	포함		포함	
F값	28.31***		19.71***	
수정R ²	0.138		0.117	
N	11,925		11,925	

〈Panel B〉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의 연속적 기재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begin{aligned} LNAF_{i,t} / LNAH_{i,t} = & \beta_0 + \beta_1 Repeat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BIGA_{i,t} + \beta_5 ROA_{i,t} + \beta_6 LAR_{i,t} \\ & + \beta_7 FOR_{i,t} + \beta_8 OPN_{i,t} + \beta_9 LOSS_{i,t} + \beta_{10} ARINV_{i,t} + \beta_{11} CFO_{i,t} + \beta_{12} BTM_{i,t} \\ & + \beta_{13} QR_{i,t} + \beta_{14} GRW_{i,t} + \beta_{15} CHN_{i,t} + \beta_{16} CON + ID + YD + \epsilon_{i,t} \end{aligned}$$

변수 ¹⁾	(1) 종속변수 = 감사보수(LNAF)		(2) 종속변수 = 감사시간(LNAH)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절편	4.001	26.45***	-0.404	-2.98***
Repeat	0.056	3.72***	0.034	2.80***
$\Sigma Controls$	포함		포함	
YD	포함		포함	
ID	포함		포함	
F값	217.44***		254.28***	
수정R ²	0.728		0.743	
N	13,491		13,491	

1) 변수설명 : 다음의 변수의 〈Table 5〉의 설명 참조

Repeat : 전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이 기재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1%	25%	중위수	75%	99%
Repeat	13,491	0.245	0.429	0.000	0.000	0.000	0.000	1.000

2) ***, **, *은 각각 유의수준 1%, 5%, 10% 기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분산팽창계수(VIF) 통계량은 최대 3 이하임

4) t값은 회사(firm)별 clustering 후 기준 통계량을 의미

를 제시한다. <Table 12> Panel B에 제시된 결과는 연속적으로 강조사항이 기재된 회사에 대하여 감사보수 및 감사위험 간의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여, 연속적인 강조사항 기재에 대한 감사인의 위험대응이 적극적임을 시사한다.

V. 결론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자본시장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최근 정책당국은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의 신설, 핵심감사사항 도입 등 감사보고서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제외한 강조사항에 대해 감사인의 대응을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감사보고서 상 강조사항 기재나 강조사항 유형의 정보 유용성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에 계속기업 존속능력 평가에 대한 강조사항에 편중된 선행연구와 달리,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 기재 표본을 제외한 전반적인 강조사항의 정보유용성을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차별점을 갖는다.

2011년부터 2019년의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13,491 표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조사항 기재는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지며, 영업환경 변화와 특수관계자 거래, 수주산업 강조사항의 경우 두 변수 모두에서 양(+)의 관련성이 유지되었다. 한편, 소송의 경우 감사보수에 대해서만 유의성이 관찰되었으며,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강조사항의 경우 주로 감사시간에 대해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 이외 강조사항의 상당부분을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여 감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새롭게 개편된 감사보고서에서도 이들 정보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적 공헌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계속기업 강조사항 이외의 강조사항 정보의 유용성을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감독당국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 거래, 영업환경 변화 및 수주산업 등에 대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유의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는 강조사항 별 감사인 대응이 다름을 의미하며, 정보이용자들이 이를 고려하여 의사결정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계속기업 기재 표본을 제외한 후 강조사항이 유형별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관련성을 가짐을 보임으로써 강조사항 관련 연구를 새로운 관점에서 확장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갖는다.

다만, 이와 같은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가지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는 강조사항의 기재 및 그 유형과 감사인의 대응에 대한 연관성을 제시할 뿐이며 구체적인 메커니즘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강조사항은 감사인이 재무제표 정보이용자의 주의 환기가 필요한 정보를 강조하는 것으로 강조사항 기재가 감사위험을 증가시킬 수 없으며, 감사인이 인지하는 감사위험은 강조사항에 기재될 수 있는 이벤트 존재와 관련된다. 따라서 강조사항 기재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간의 양(+)의 실증결과는 감사인이 이벤트 관련 위험을 적절하게 인지한 후 강조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강조사항 기재가 감사위험을 높인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보수 및 시간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 변수의 누락으로 연구결과에 편의가 내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더욱 엄밀한 연구방법론을 통한 감사보고서 유용성 확인을 위한 후속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Amin, K., J. Krishnan, and J. S. Yang(2014), "Going concern opinion and cost of equity,"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3(4), pp. 1-39.
- Bronson, S. N., Ghosh, A., and C. E. Hogan (2017), "Audit fee differential, audit effort, and litigation risk: An examination of ADR firm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4(1), pp. 83-117.
- Carson, E., N. L. Fargher, M. A. Geiger, C. S. Lennox, K. Raghunandan, and M. Willekens(2013), "Audit reporting for going-concern uncertainty: A research synthesi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2(1), pp.353-384.
- Cheon, Y. S., J. H. Rho, and G. S. Bae(2004), "The Incentives for, and Market Reactions to the Explanatory Paragraphs in the Auditor's Report," *Korean Accounting Review*, 29(2), pp.59-82.
- Cho, M., E. Ki, and S. Y. Kwon(2017), "The effects of accruals quality on audit hours and audit fees,"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 Finance*, 32(3), pp.372-400.
- Choi, J. H., K. A. Jeon, and J. I. Park(2012), "The Association between Litigation Risk of Client Firms and Audit Fees,"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54(2), pp.343-380.
- Choi, J. S., and K. T. Gong(2014),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Numbers Associated with Depreciation Policy Change Subsequent to the K-IFRS Adoption," *Korean Accounting Review*, 39(6), pp.267-302.
- Choi, S. U., H. J. Na, and K. C. Lee(2023), "Does explanatory language convey the auditor's perceived audit risk? A study using a novel big data analysis metric," *Managerial Auditing Journal*, 38(6), pp.783-812.
- Czerney, K., J. J. Schmidt, and A. M. Thompson (2014), "Does auditor explanatory language in unqualified audit reports indicate increased financial misstatement risk?," *The Accounting Review*, 89(6), pp.2115-2149.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2017), "Revision of accounting auditing standards for full introduction of key audit matters, etc.," 2017. 12.20. Press Reference.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2013), "Analysis of the explanatory paragraphs in the 2012 listed corporation audit report," 2013.9.2. Press Reference.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2016), "Analysis of accounting firm's annual report for the 2015 fiscal year," 2016.9.9. Press Reference.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2016), "Analysis of audit reports of listed corporations in fiscal year 2015," 2016.7.19. Press Reference.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2018),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the 2017 fiscal year listed company audit report," 2018.8.8. Press Reference.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2019),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the 2018 fiscal year listed company audit report," 2019.8.14. Press Reference.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2019), "Analysis of accounting firm's annual report for the 2018 fiscal year," 2019.10.29. Press Reference.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2019),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e 2018 pharmaceutical and bio industry R&D expenditure inspection," 2019.5.3. Press Reference.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2020),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the 2019 fiscal year listed company audit report," 2020.8.19. Press Reference.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2021), "[Financial Tips 200 - No. 120] - Using 100% of the changed audit report for wise investment," 2021.1.20. Press Reference.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2022),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the 2021 fiscal year listed company audit report," 2022.8.17. Press Reference.
- Ha, M. H., Y. S. Lee, and H. J. Park(2018), "Study on Key Audit Matters for Production-to-Order Industry : Benefit and Cost Analysis,"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23(4), pp.151-180.
- Han, K. H., and K. W. Lee(2015), "Study on the Effect of Related Party Receivables · Obligations between Audit Fees and Audit Hour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8(4), pp.1231-1247.
- Han, Y. Q, S. H. Choi, and G. M. Nam(2020), "The effect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on the realization rate of audit engagements,"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62(2), pp.1-28.
- Hwang, J. H. S. H. Choi, and G. M. Nam(2020), "Correction of Prior Period Errors: A Case of M-Medi," *Korean Accounting Journal*, 29(2), pp.219-249.
- Jung, N. C., and S. W. Jeong(2019), "Inconsistent Disclosure on Audit Hours Released in Annual and Audit Report, Auditor's Response and Audit Quality," *Korean Accounting Review*, 44(4), pp.129-173.
- Jung, N. C., H. A. Kim, and J. W. Choi(2019), "The audit report lag by the type of emphasis of matter in audit report," *Korean Management Review*, 48(3), pp.683-714.
- Kim, J. T., and Y. J. Shin(2019), "The Valuation for Disclosure of Litigation Related Information,"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85, pp.81-97.
- Kim, T. D., C. H. Bae, and H. J. Lim(2019), "The Effect of Going Concern Uncertainty Opinion on Audit Report Lag,"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37(2), pp.73-92.
- Kwon, S. Y., and M. C. Kim(2001), "Determinants of Audit Fee and Effect of Audit Fee De-regulation," *Korean Accounting Review*, 26(2), pp.115-144.
- Kwon, S. Y., Y. Lim, and R. Simnett(2014), "The effect of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on audit quality and audit fees: Empirical evidence from the Korean audit market,"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3(4), pp. 167-196.
- Lee, Y. W. and H. C. Park.(2003), "Information contents of going concern problem adding an emphasis of matter paragraph," *Korean Accounting Journal*, 12(2), pp.87-105.
- Lim, J. H., E. J. Cho, and J. H. Chang(2015), "The Effect of Merger and Acquisition on Audit Fee,"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57(1), pp.1-41.
- Menon, K. and D. D. Williams(2010), "Investor reaction

- to going concern audit reports," *The Accounting Review*, 85(6), pp.2075-2105.
- Park, J. I., and J. Y. Shin(2014), "Corporate Lawsuits, the Cost of Capital, and Firm Characteristics," *Korean Accounting Review*, 39(4), pp.251-304.
- Park, J. I., and S. K. Kwak(2013), "The Effect of Litigation Risk of Client Firms on the Auditor's Audit Effort," *Korean Accounting Journal*, 22(1), pp.41-76.
- Park, J. S., and M. K. Chung(2019), "The Improvement of Auditing and Disclosing for Correction of Prior Period Errors in Financial Statements,"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20(1), pp.67-94.
- Park, J. S., S. Y. Hwang, and S. W. Yu(2015), "The Effects of Going-Concern Opinion on Credit Rating and Cost of Debt,"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16(6), pp.9-41.
- Park, K. J., K. Y. Kim, and M. S. Song(2014), "Issues Related to the Restatement Approach to Error Corrections," *Korean Accounting Journal*, 23(2), pp.345-368.
- Rho, J. H., S. H. Cho, and G. S. Bae(2004), "The effect of the mandatory auditor retention requirement on audit fees," *Korean Accounting Review*, 29(1), pp.207-230.
- Simunic, D. A., and M. T. Stein(1996), "Impact of litigation risk on audit pricing: A review of the economics and the evidence," *Auditing*, 15, pp.119.
- Sohn, S. K., C. H. Bae, and H. J. Lim(2017), "The Effect of the Going-concern Opinion on Auditor Change,"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59(3), pp.41-76.
- Song, M. S., K. Y. Kim, and K. J. Park(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quality and the adoption of quasi-key audit matters in make-to-order industry," *Future Growth Studies*, 6(2), pp.57-84.
- Yoon, S. H., and I. T. Hwang(2015), "A Study on the Agreement of Cognition among the Independent Auditors Concerning the Emphasis Paragraphs in the Audit Report,"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57(2), pp.67-118.

-
- The author Hyun Ah Kim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accounting at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KOREATECH), School of Industrial Management. She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 and worked for Samil Accounting Corporation and Korea Securities and Finance Corporation. She received her Ph.D in accounting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Korea University and her research interests are corporate governance and auditing.
 - The author Namchul Jung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gik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 D. from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nd worked at Deloitte Anjin and BC Card Co., Ltd. His major research areas include audit quality, disclosure, and other fields of auditing and financial accounting.